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18:00 (청 년)	21:00 (밤)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유 아 세 례 연령회 회장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사목회의	4월 24일(목) 19:40	강당
울뜨레야	4월 27일(일) 11:40	강당
자녀를 위한 기도	5월 2일(금) 19:40	1교실
성모성심회	5월 3일(토) 17:30	강당

● 다음 주일(4/27) 청소 담당 : 5구역

● 알림

- 오늘은 미안마 긴급구호 2차현금이 있습니다

● 노인대학 시니어아카데미 봄 소풍

- 장소 : 참회와 속죄의 성당(파주)
- 일시 : 4/24(목) 오전9시 출발(성당정문)

● 착한목자수녀회 한국 본원 축복식

교우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으로 한국본원이 완공되어 4월 26일에 축복식이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착한목자수녀회 관구장 이스텔라수녀

● 수지계산서

2024.12

수입		비용	
계정 과목	금 액	계정 과목	금 액
봉헌금	760,181,800	선교비	411,840,783
후원금	17,464,820	성무활동비	94,523,096
목적헌금	33,713,960	교육비	3,495,000
기부금	6,704,232	자선찬조비	12,013,240
부속기관수입	14,700,000	행사비	64,430,800
기타수입	137,497,178	인건비	167,956,100
		회의비	3,683,560
		운영비	79,205,800
		세금과공과	7,099,425
		복리후생비	9,736,860
		기타	46,029,700
		운영수지차액	70,247,626
합계	970,261,990	합계	970,261,990

● 祝 세례식

-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 교중미사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 유초등부 기쁨잔치 안내

[부활의 기쁨을 친구들과 함께 누리요!]

- 대상 : 5세 ~ 13세
- 일시 및 장소 : 4월 27일(일) 12시 주차장
- 문의 : 최웅석 베드로(010-5473-9476)
- 당일 주차가 불가합니다.

● 개봉동성당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사랑골”

- 대상 : 사고사나 돌연사로 사별을 경험한 가족
- 일시 : 4/23(수)~6/11(수)매주 수요일 오후2시
- 문의 : 이수민 그라치아수녀(010-6735-2325)

●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 지향 :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 묵주기도 10단에 묵주알 1개를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헌함은 성전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4월 9일 ~ 4월 15일)

- 교무금 7,945,000원
- 주일헌금 4,303,000원
- 2차헌금 1,958,470원

- 감사헌금 국정심 5만원 M.E 5만원 서만심 6만원
김창현10만원 모경숙 5만원 김명자 5만원
신종구 5만원 최은화 3만원 이영자5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4/20	임종남	오성환	심재순	임종윤	손정주
4/27	이영민	신종구	양유철	윤상기	정연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4/20	최승일	이화봉	박용환	김용진	최웅조
4/27	최영만	장인홍	옥윤필	도현만	하재민

성가번호 ♪ 입당 : 130 ♪ 예물준비 : 134, 136 ♪ 영성체 : 129, 135 ♪ 파견 : 128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파손된 성물의 처리 지침에 관한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의견

오래전, 1874년 (지금의 교황청 경신성사부와 신앙교리부의 전신인) 예부성성(Sacra Congregatio Rituum)과 성무성(Sanctum Officium)이 발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에는<그러나 오래전 문서인 탓인지, 이 지침을 교황청 문헌(ASS나 각 부서의 문헌들)에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폐기 방법이나 지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는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교회법 제1171조)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다음의 것들을 폐기하고자 할 때

1. 성작과 같은 금속 제품은 녹여서 같은 물건을 만들 때 쓴다.
2. 모든 종류의 천(제대포, 성체포, 성작 수건, 제의, 장백의, 영대 등)은 태워서 재를 만들어 땅에 묻어야 한다.
3. 성수가 오염되었거나 너무 오래되었을 때는 흙이 있는 땅(밭이나 화단 등)에 그대로 쏟아 버려야 한다(세면대나 싱크대에 쏟는 게 아님).
4. 성지 가지는 태워서 재의 수요일에 재로 사용할 수 있다.
5. 목주나 성상들은 땅에 묻어야 한다.

참고로, 파손된 성상이나 기타 성물들은 잘게 부수어서 땅에 묻어야 한다는 지침이 돌고 있는데, 이는 명확히 선언된 것이 아니라 위 지침을 개별 교회에서 좀 더 발전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더 잘게 부수라는 내용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요즈음에는 1874년의 구체적 지침을 따라, 파손된 성물을 개인이 땅에 묻거나 태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874년의 지침을 참조하되 각 교구가 적절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파손된 성물을 본당이나 교구에서 모아, 성물업체에 적절한 폐기를 부탁하거나, 성물 이미지가 남지 않게 잘게 부수거나 태워 버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공동 처리가 여의치 않다면, 각 개인들이 파손된 성물이 안 보이도록 잘 싸서 분리수거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사 편람 제16조 “② 성물의 사용에 결부된 대사는 그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팔릴 때에만 소멸된다.”를 참조할 때, 많이 파손된 것은 더 이상 성물로서 효과를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